

빅터 & 롤프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

이영민 · 이연희 · 박재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Surrealistic Features of Viktor & Rolf's Design

Young-Min Lee, Youn-Hee Lee and Jae-Ok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 Hanyang University
(2007. 2. 9. 접수 : 2007. 3. 3. 채택)

Abstract

Viktor and Rolf, despite their short career in the field, has been continuously giving a fresh impact on fashion design by grafting a surrealistic approach to their design works. As a basis of this study, we review the features of surrealistic drawing and the surrealistic features expressed in surrealistic clot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rrealistic features detected in the clothes designed by Viktor and Rolf on the basis of the above standard and review and predict the future trend in fash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 we review the previous researches and analyze the drawing works by some representative surrealistic artists, in particular, Schiaparelli's clothes in the 1930s, the clothes of surrealistic trend since 2000, and Viktor & Rolf's cloth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he surrealistic features of Viktor & Rolf clothes can be found in the movement of natural objects, the movement of everyday materials, the movement of clothing items, and visual illusion on clothes. As a whole, the surrealistic features clearly stood out in their clothes. High technology will rapidly change the modern society and we humans are likely to resort to something fresh or different as our emotion and feelings are getting tired and weary. Something that stimulates our feeling and emotion hidden behind our reason or logic will be reflected in design far more than something complex and functional. For this reason, as it reveals human imagination inherently, surrealism is expected to establish itself as a mega trend in the future.

Key words: surrealism(초현실주의), schiaparelli(스키아패렐리), Viktor & Rolf(빅터 앤 롤프), mega trend(메가 트렌드), surrealistic features(초현실적 특성).

I. 서 론

최근 현대 의상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고 각 미술 사조에 나타났던 조형상의 특징들이 의상 디자인에 유사한 기법으로 재조명됨으로써 독특하고 창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은 전통적

으로 사회적인 욕구를 반영시켜 왔고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나타내어졌다.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미지의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20세기 현대 조형예술의 표현영역을 넓히는 데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고, 그 시대의 복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혁명적 성격을 띤 초현실주의 예술이 패션

[†] 교신저자 E-mail : jaepark@hanyang.ac.kr

계에 영향을 끼친 이래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디자인이 배출되어 왔고 초현실주의 예술은 패션 디자인분야에서 신선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패션 트렌드 경향을 보면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데 2003년의 디자인 잡지의 트렌드 경향 보고서에 이어 2005년의 인터패션플래닝 FW 트렌드 경향에서도 초현실주의 경향의 유행을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미래의 메가트렌드에서도 또 다시 예상되고 있다.

메가트렌드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사회변화의 거시적 추세이다. 이 메가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¹⁾. 2006년에 출간된 메가트렌드 책에서는 20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7번째의 것이 ‘현실을 넘어서’이다. 이 개념은 ‘실재’ 없는 ‘현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리얼리티’에 관한 인식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재에 대한 회의는 매체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언제부터인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나 TV, 스크린의 대상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종종 믿게 된 것이다. 과거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초현실주의 개념과 현대의 초현실 개념은 시대적 상황과 문명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초현실세계에 대한 동경과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망,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과 기이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평범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의 미술 사조는 그 태동 이후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어 왔으며, 미래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Viktor & Rolf는 활동한 역사는 짧지만 패션계에 지속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디자인에 접목시키고 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영향의 연속선상에 있는 디자이너 Viktor & Rolf를 중심으

로 최근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초현실주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도 초현실주의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대에 와서 점차적으로 비중이 커지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현대 의상 연구를 위하여 근간이 되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특성과 의상에 표현된 초현실적 특성을 고찰하고 현대 의상에 초현실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둘째, 이미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을 종합하고 정리 분석하여 Viktor & Rolf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적 특성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초현실주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항상 시도해야 하는 디자이너의 방법론으로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로 계속 존속할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기존의 연구를 수용하면서 주요 근거 자료인 관계문헌과 그림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의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초현실주의 회화작품이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을 1930년대의 스기야빠렐리 의상과 2000년대 이후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현대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지금까지 분류되었던 초현실주의 특성을 종합해 본다. 넷째, 종합된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들을 바탕으로 Viktor & Rolf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적 특성의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작품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현실주의 회화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인 문학·예술 운동이다. 다다이즘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초현실 세계를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는 인간, 사회 질서, 윤리, 예술까지 부정하는 허무적인 다다이즘에

1) 강홍렬 외, *메가트렌드*, (서울: 한길사, 2006), p. 15.

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의식 세계, 꿈의 세계, 오토마티즘(Automatism; 자동기술)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예술적인 질서를 추구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상상을 종합하여 ‘초현실의 세계’를 구현시키고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론의 토대로 삼고 새로운 표현 기법을 사용했는데, 오토마티즘, 콜라주(Collage), 데페이즈망(Depaysment), 프로타주(Frottage) 등이 주요한 예들이다²⁾.

오토마티즘은 미리 어떤 의도를 품지 않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한 채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것, 내면에 떠오르는 색깔과 형태 등을 붓 가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콜라주는 큐비즘에서 실험하던 파피에 콜레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여러 가지 일상의 소재를 혼합시켜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³⁾. 데페이즈망은 일종의 전위법(前衛法)으로 모순·대립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화폭에서 결합시키거나 어떤 오브제를 전혀 엉뚱한 환경에 위치시켜서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 일으키는 기법인데, 이 방법은 거의 현대 미술의 상투적 수법으로 쓰이고 있다. 프로타주의 본래의 뜻은 물체를 마찰시켜서 독특한 영상을 얻는다는 뜻이다⁴⁾. 콜라주와 데페이즈망과 프로타주는 회화에서 뿐만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초현실주의 화가의 첫 세대는 Jean Arp, Giorgio de Chirico, Max Ernst, Paul Klee, Pablo Picasso, Yves Tanguy와 같은 화가들로 호프만(W. Haftmann)은 초현실주의가 이전까지의 사고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꿈에서 연상되는 특수한 형태와 차원이 높은 리얼리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초현실주의 회화를 오토마티즘(Auto matism) 기법을 이용한 추상적 초현실주의와 데페이즈망(Depaysment) 기법을 이용한 사실적 초현실주의로 분류하였다.

오토마티즘 기법을 사용한 화가는 폴 클레(Paul Klee)와 조안 미로(Joan Miro)와 안드레 메슨(Andre Masson)이 있는데, 이들 중 클레는 회화적 오토마티

즘을 근거로 무의식 속에 묻혀 있는 이미지들을 발굴해 낸 화가로서⁵⁾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세련되게 만들고 축소시킴으로써 정확한 자기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내었다⁶⁾(그림 1). 미로는 클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연적 형태들을 자유롭게 변형시켜 기호(sign)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하였고 자신의 고유한 상상력을 토대로 점·선·곡선·직선들을 사용해 자신이 체험한 세계의 모습을 명확한 기호로 간결하게 환원시켜 나타내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그림 2).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한 화가는 Max Ernst와 Salvador Dali 그리고 Rene Magritte가 있다. 오토마티즘이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을 형상화했다면 데페이즈망은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⁷⁾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 마그리트는 미래파와 입체파의 단계를 거친 후 초현실주의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였다. 그녀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모습들을 불합리한 맥락 속에 화면 위에 불안정하게 배치하여 현실을 그리는 데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으며, 상업적인 디자인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그림 3). 막스 에른스트는 다다이스트로 출발하였으며 콜라주 기법으로 목판화를 재창조하여 색다른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 데칼코마니 기법을 통해 그의 상



〈그림 1〉 Paul Klee.



〈그림 2〉 Joan Miro. 네덜란드 풍의 실내(1928).

2)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p. 217.

3) 열화당 편집부,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열화당, 1988), p. 38.

4) 열화당 편집부, *Op. cit.*, pp. 42-43.

5) 신현숙, *Op. cit.*, p. 225.

6) Horst Woldemar Janson (1989), *회화의 역사*, 유홍준 역 (서울: 열화당).

7) 김일, "Elsa chiaparelli작품 연구(I)," *국민대 조형논집*, 제12호, (1993), p.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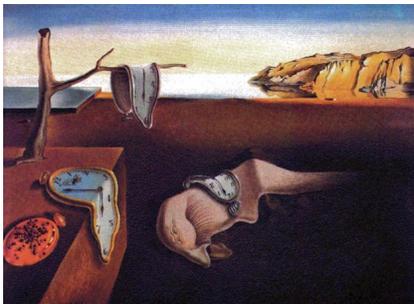


〈그림 3〉 Rene Magritte. 부인의 내실의 철학(1947).



〈그림 4〉 Max Ernst. 초현실주의와 회화(1942).

상력과 직감을 표현하였다(그림 4). 살바토르 달리는 이성적 실험으로 개척한 자신의 초현실주의 회화양식을 스스로가 비판적 과대망상증이라 불렀는데, 그의 원근법은 인쇄지면에 심도를 부여하였고 동시성에 대한 그의(삭제요망) 사실주의적 접근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그림 5).



〈그림 5〉 Salvador Dali. 기억의 지속(1931).

2. 초현실주의 의상

복식에 있어서의 초현실주의 경향은 1930년대에 스기야빠렐리(Schiaparelli)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그녀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을 작업에 연루시킴으로써 의상과 순수예술의 두 범주를 분리시켜 왔던 기존의 개념을 붕괴시켜 현대 의상의 발전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⁸⁾. 스기야빠렐리는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인 Dali, Man Ray와 친분관계가 두터워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리본 모양을 짜 넣어 실제로 리본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웨터(그림 6), Dali 등의 화가에 의해 디자인 된 프린트 직물(그림 7), 신문지 패턴을 나뉘한 직물, 입술이나 나비 모양의 단추(그림 8), X선에 비친 갈비뼈 모양의 T셔츠, 신발모양의 모자⁹⁾ 등이 있다. 특히, 처음으로 의상에 도입한 지퍼는 당시로



〈그림 6〉 스기야빠렐리 스웨터.



〈그림 7〉 가제를 프린트 한 드레스(1937).



〈그림 8〉 나비단추(1937).

8) 최선형, “유행과 초현실주의,” *생활과학연구논집* 13권 1호, p. 116.

9)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New York: Rizzoli, 1991), pp. 66-68.

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비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기야빠렐리는 1950년대에 활동을 중단했지만 그녀 이후에도 그녀의 독창적 창의력은 계속 이어져 80년대 이후에도 그녀의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Yves Saint Laurent, Karl Lagerfeld, Paco Rabanne, Thierry Mugler, Jean Paul Gaultier, Viktor & Rolf 등이 바로 그녀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몇몇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은 1987년에 “Fashion and Surrealism”이란 제목의 책을 저술하여 Yves Saint Laurent, Gaultier, Lagerfeld 등이 스기야빠렐리의 아이디어를 부활시켜 초현실주의적 스타일을 재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이 책에서 현대 디자이너들의 초현실적 의상의 특성을 Metaphor and Metamorphosis(은유와 변형), Bodies and Parts(몸과 몸의 부분), Displacement and Illusion(이동과 착시), Natural and Unnatural Worlds(자연적과 비자연적 세계), Trompe-l'oeil(트롱쁘뢰이유, 눈속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는 리처드 마틴의 분류를 기준으로 1930년대에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의상과 2000년대를 전후해서 나타나고 있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의상을 추가하여 설명함으로써 초현실주의의 지속적인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Metaphor and Metamorphosis(은유와 변형)

은유와 변형의 측면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은 크게 여성과 악기, 거울, 인체 형태의 추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적 상상 속에서 악기는 여성과 유사함을 갖는다고 여겨졌고 이에 영향을 받아 스기야빠렐리는 음악적 모티프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그림 9). 또한 초현실주의에서는 거울에 반사되는 세계를 초현실의 세계로 생각하였는데, 스기야빠렐리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 옷에 거울을 부착한 디자인을 보여 주었다(그림 10). 마지막으로 초현실주의 조각가 아르프(Jean Arp)의 영향을 받아서 인체의 형태를 추상화한 조지너 고드레이(Georgena Godley)의 shaped dress가 있다. 은유와 변형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칼 라거드 필드는 키보드 형태의 벨트를 적용한 디자인을 하였으며, 이세 미야케는 초현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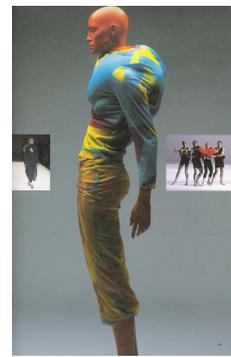
〈그림 9〉 Schiaparelli (1937).



〈그림 10〉 Schiaparelli(1936).



〈그림 11〉 Issey Miyake (2005).



〈그림 12〉 카와쿠보 레이 (1997).

영향을 받아 의상에 거울을 부착한 드레스를 디자인 하였다(그림 11). 그리고 카와쿠보레이는 인체를 추상적으로 변형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그림 12).

2) Bodies and Parts(몸과 몸의 부분)

초현실주의자들은 몸의 모든 부분을 분리시켜 응용하였는데 입술이 가장 관능적인 심벌이었고 눈을 초현실적 오브제로 복식의 오감표현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눈과 입술 외에 손도 많이 응용하였다. 1930년대에 스기야빠렐리는 검정 스웨이드로 만든 장갑의 겉면에 뱀가죽으로 손톱을 만들어 붙여 초현실적 표현을 하였고(그림 13), 달리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고 Jean Cocteau가 디자인한 수를 이용하여 재킷을 디자인하였다(그림 14). 현대의 디자이너 이세 미야케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눈과 입술을 프



〈그림 13〉 Schiaparelli (1938).



〈그림 14〉 Schiaparelli (1937).



〈그림 15〉 Issey Miyake 2005.



〈그림 16〉 Alexander McQueen(2000).

린트한 의상을 보여 주었으며(그림 15) 알렉산더 맥퀸은 석고 재질을 이용하여 의복 밑에 있는 신체를 의복 위로 표현해냄으로써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의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하였다(그림 16).

3) Displacement and Illusion(이동과 착시)

이동은 데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하여 대담한 위치 전환을 하는 것으로 구두를 거꾸로 표현한 모자는 우연성을 중대시하는 초현실주의 상상력의 해방이 체제한 현대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착시는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달리의 비합리적이고도 불가사의한 형상들을 표현한 작품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스기야빠렐리는 이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체의 흉부에 서랍을 달아 인체를 가구로 물체화한 달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사무용 책상의 서랍 모양을 본뜬 데스크 정장을 디자인하였다(그림 17). 그녀는 또한 착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달리의

호르는 눈물에서 영감을 받아 드레스가 조각조각 찢어져 늘어진 것 같은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그림 18). 스기야빠렐리는 달리, 베라르, 꼬뜨, 베르떼, 드리앙같은 예술가들을 그녀의 창작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예술과 의상의 만남을 시도하여 현대 의상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그녀의 영향력은 2000년대 디자이너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디자이너 안토니오 베랄디가 책을 인체의 머리 위에 이동하여 모자로 형상화한 초현실적 디자인을 시도하였고(그림 19), Viktor & Rolf는 시각적 착시를 이용하여 마치 셔츠가 찢어져 없어진 듯한 초현실적 효과의 셔츠를 디자인하였다(그림 20).



〈그림 17〉 Schiaparelli(1936). Desk Suit.



〈그림 18〉 Schiaparelli (1937). Tear Illusion Dress.



〈그림 19〉 Antonio Berardi (2005).



〈그림 20〉 Viktor & Rolf(2005).

10) 형성희, “현대복식의 초현실주의적 조형성,” 복식문화연구 2권 2호 (1994), p. 428.

4) Natural and Unnatural Worlds(자연적인 세계와 비자연적인 세계)

자연적과 비 자연적은 우연히 만나는 자연계의 사물에서 디자이너의 욕망을 추구하며 초현실적인 해석을 부여하여 우주적 생명력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또한 달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스키피아빠렐리는 전화기 수화기로 둔갑한 달리의 진홍색 바닷가재에서 영감을 받아 바닷가재와 녹색의 파슬리를 함께 수놓은 흰색의 이브닝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그림 7).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오브제인 곤충, 나비 등이 직물의 패턴이나 단추, 액세서리, 모자 등으로 은유 변형되었는데(그림 8), 새는 가벼움과 우아함을 가진 여성의 은유로 표현하였고 나무는 여성의 출산력을 상징하였다. 꽃은 아름다운 여성의 비유로 그리고 나비는 역설적인 형태 변화로 비유되었다. 이것은 현대패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대에 Philip Treacy는 나비를 이용하여 머리 전체가 나비에 뒤덮인 듯한 머리 장식을 디자인하였고(그림 21), Viktor & Rolf는 사람의 머리에 사슴뿔을 달아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하였다(그림 22).

5) Trompe-l'oeil(트롱쁘뢰이유, 눈속임)

초현실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한 눈속임이라는 뜻의 트롱쁘뢰이유(Trompe-l'oeil)의 기법은 스키피아빠렐리가 패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리본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한 면직의 스

웨터였다.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예복의 교묘한 조화를 이룬 완벽한 발명품으로 현대 디자인에 계승되었다(그림 6). 2000년대에 Antonio Berardi는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하여 블라우스 위에 가슴이 드러나 보이는 듯한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하였고(그림 23), 스키피아빠렐리의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은 앞뒤가 거꾸로 된 디자인을 보여 주었다(그림 24, 25).

본 장에서는 1987년에 이루어진 리처드 마틴의 분류를 바탕으로 초기 초현실주의 복식을 정립시킨 스키피아빠렐리의 의상과 200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현실주의 특징의 의상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초현실주의 의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현실적 특징의 의상이 현대 의상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이후이나 이미 기존의 연



〈그림 23〉 Antonio Berardi(2002).



〈그림 21〉 Philip Treacy (2003).



〈그림 22〉 Viktor & Rolf(2004).



〈그림 24〉 Schiaparelli (1938). Rendering of Backward Suit. 〈그림 25〉 Antonio Berardi (2001).

구들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를 제외시켰다.

3. 초현실주의 의상에 관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의 초현실주의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의 분류이고 둘째는 초현실적 특성을 나타내는 특정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로, 일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의 분류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는 리처드 마틴으로 그는 초현실주의 특성을 은유와 변형, 몸과 몸의 부분, 이동과 착시, 자연적과 비자연적 세계, Trompe-l'oeil(트롬쁘뢰이유, 눈속임)기법으로 분류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1993년에 발표된 최선행의 연구는 신체 부위의 이동, 자연물의 복식으로서의 이동, 일상 사물의 이동, 복식 품목의 이동, 시각적 착시로 분류 기준을 정하였다. 리처드 마틴의 분류와 다른 점은 이동과 착시를 일상사물의 이동과 착시로 분리하여 분류하였고, Trompe-l'oeil(트롬쁘뢰이유 기법)를 복식 품목의 이동으로 분류한 점이다. 형성희(1994)는 현대의 초현실주의 복식 중 오토마티즘에 의한 것은 배제시키고 데페이즈망 표현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치와 용도 변경, 구조적인 형태 변경, 콜라주 기법, 트롬쁘뢰이유 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효진(1994)은 주관적이고 엉뚱한 강조, 초현실적인 에로티시즘, 구조적인 형태 변경, 인체의 왜곡, 트롬쁘뢰이유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그녀의 분류를 리처드 마틴의 분류와 비교하면 주관적이고 엉뚱한 강조는 자연과 비자연의 분류와 초현실적인 에로티시즘과 인체의 왜곡은 몸과 몸의 부분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둘째로, 초현실적 특성을 나타내는 디자이너 복식에 관한 연구는 박명희(1994)가 칼라거펠드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지금까지의 연구들과는 다른 내적상징성 관점에서 에로티시즘(관능성), 도전, 유머, 반역사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김경희(1997)는 티에리뮤글러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부위의 응용, 자연물의 응용,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2).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가 거의 리처드 마틴의 분류 기준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단지 작품에 따라 분석하는 분류기준을 달리하거나 디자이너마다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보는 관점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Viktor & Rolf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적 특성 연구를 위하여 지금까지 Viktor & Rolf가 발표한 작품 중 각각의 옷이 보여주는 초현실적 특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한

〈표 1〉 일반 현대 복식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의 분류

연구자	분류
리처드 마틴 (1987)	은유와 변형 몸과 몸의 부분 이동과 착시 자연적과 비자연적 세계 Trompe-l'oeil(트롬쁘뢰이유 기법)
최선행 (1993)	신체 부위의 이동 자연물의 복식으로서의 이동 일상사물의 이동 복식품목의 이동 시각적 착시
형성희 (1994)	데페이즈망 표현방법 위치와 용도 변경 구조적인 형태 변경 콜라주 기법 트롬쁘뢰이유 기법
이효진 (1994)	주관적이고 엉뚱한 강조 초현실적인 에로티시즘 구조적인 형태 변경 인체의 왜곡 트롬쁘뢰이유 기법

〈표 2〉 초현실적 특성을 나타내는 디자이너 복식의 특성분류

연구자	분류
박명희 (1994) ‘칼 라거펠드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에로티시즘(관능성) 도전 유머 반역사성
김경희 (1997) ‘티에리뮤글러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신체부위의 응용 자연물의 응용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

후 선행 연구에서 분류된 기준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Viktor & Rolf 작품 고찰

1. Viktor & Rolf의 작품 세계

Viktor & Rolf는 1993년에 처음으로 컬렉션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컬렉션을 보여준 역사는 짧지만 패션계의 지속적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Viktor & Rolf는 1993년 Victor Horsting과 Rolf Snoeren이 네덜란드의 Arnhem 아카데미에서 패션을 함께 전공하고 남부 프랑스의 Hyeres에서 열린 대회에서 Viktor & Rolf라는 이름으로 참가하여 1등 상을 포함한 3개의 상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Viktor & Rolf는 패션이란 인생과 같이 가능성의 표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색과 형태 표현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적이며 최초의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¹¹⁾. 이런 그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1996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설치 형태의 패션쇼를 보여 주었다. 바닥 위에 검정 옷들을 빛나는 드레스의 그림자처럼 늘어놓고 한 쪽 벽면에는 슈퍼모델들의 이름을 썼으며, 배경음악으로 이 모델들의 이름이 속삭이듯 들려왔다. Viktor & Rolf는 “쇼는 패션 주변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옷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며 패션에서 옷의 권리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을 짰 것¹²⁾”이라고 말하였다. 즉 그들은 옷 자체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1999년 컬렉션에서는 한 모델이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의 옷을 입고 나오도록 구성하였다.

2000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그들은 패션이란 소리로 들을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옷 전체가 벨로 덮힌 드레스를 모델에게 입혀 딸랑딸랑 벨소리를 내며 안개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였다(그림 26). 2001년에는 블랙홀 컬렉션을 보여주었는데, 검정색을 마치 우주에 보이지



〈그림 26〉 2000 F/W.



〈그림 27〉 2001 F/W.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빛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다(그림 27). 이와는 반대로 2002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성체성사를 주제로 한 일련의 흰색 옷들을 발표하였다(그림 28). 2002~2003 가을/겨울 쇼에서는 크로마키(chromakey)라고 부르는 TV 비디오 기술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모델이 입고 있는 파란색의 옷에 영상을 비추면 옷은 사라지고 준비된 움직이는 영상이 옷에 비춰지면서 옷이 마치 영화 스크린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켰다. Viktor & Rolf는 이 블루스크린(Bluescreen)을 통해 관객들에게 옷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겹이 존재하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Viktor & Rolf는 옷을 “표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재연하는데에 집중하였고, 색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을 시도하였다. 2003년 봄/여름 컬렉션은 다양한 종류의 색과 형태를 가진 꽃을 보여 주었는데 무대 위에서 모델들은 꽃 모양의 옷을 입고 활달하게 춤을 추었으며, ‘자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2004년도 쇼에서는 이 모델들이 모두 빨간색 구두를 신었는데 이것은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얘기에서처럼 빨간 색 구두를 신은 사람은 영원히 계속 춤을 추는 운명이 된다는 얘기에 착안한 것이었다(그림 29). 그리고 그들의 의상과 함께 그들의 부티크도 그들이 표현하고 추구하는 독창성을 잘 보여주

11)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Fashion in Colors/Viktor & Rolf & KCI*, (Kyoto: Nissha printing Co., 2004), p. 279.

12)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Op. cit.*, p. 279.



〈그림 28〉 2002 S/S.



〈그림 29〉 2004 S/S.

고 있는데, 부티크 내부 전체가 거꾸로 디자인되어 마치 꿈속과 같은 초현실세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Viktor & Rolf가 발표한 각 컬렉션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Viktor & Rolf의 패션과 보여주는 방식은 항상 흥미진진하고 여러 가지 상징과 해석이 가능하다.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은 Viktor & Rolf의 예술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전방위적인 패션관을 논의하면서 그들의 작품을 패션과 예술을 뛰어넘는 더 크고 중요한 예술과 패션의 결합이라고 묘사하였다¹³⁾.

2. Viktor & Rolf의 작품 특성

앞에 열거된 분류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Viktor & Rolf가 발표한 작품들을 고찰하여 그들의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변형, 자연물의 복식으로 이동, 일상 사물의 이동, 복식 품목의 이동, 시각적 착시를 기준으로 각각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형

초현실주의 변형의 개념은 초현실주의 작가인 아르프(Jean Arp)가 제작한 조각에서 인간 형태로부터 추상적 형태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초현실적인 해부학을 출현시킨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조지나 고드레이(Georgina Godley)는 과장된 형태의 신체의 초현실적 변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1984년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tana)의 Red-Satin Cocoon Coat가 제작됨으로써 복식의 유머에 대한 도전으로 부각되었다¹⁴⁾.

Viktor & Rolf는 아르프의 인체의 초현실적 변형과 그 개념은 수용하되 의상인 관계로 패턴 구성 방법을 이용하여 형태를 받아서 변형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30〉은 1999년에 Viktor & Rolf가 Haute Couture Fall Collection에서 10가지의 옷을 차



〈그림 30〉 1999년 Haute Couture Fall Collection.

13)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Op. cit.*, pp. 284-285.

14) 형성희, *Op. cit.*, pp. 415-443.

례로 입혀주는 것을 보여준 과정의 사진이다. 이것은 옷을 통해 인간의 체형이 초현실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복식의 유머에 도전한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형태를 받아시키는 것은 Viktor & Rolf의 작품의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옷의 어떤 부분을 복사하고 반복해서 사용하여 볼륨을 초과시켜 과장시키는 초현실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변형의 예로 2002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성체성사를 주제로 한 일련의 흰색 옷들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리본, frill과 heart 모양과 디자인에서 여러 겹(multiple layers)을 사용하여 소녀적인 요소를 풍부히 도입하여 절묘하면서도 화려한 스타일로 일반적인 옷의 상태를 변형시켰다(그림 31). 같은 방법으로 2003년에도 겹겹의 셔츠와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32, 33>은 비록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겹겹이 만들어진 형태는 밀도 높고 혁신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과장, 과다 및 반복’은 Viktor & Rolf의 작품의 주요한 상징요소들로 그들의 초기 작품들에서도 잘 드러나 있고, 후기 작품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정상적인 크기의 특징을 사용하여 극단적이고 3차원적인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과장된 볼륨과 부자연스러운 비례감에 전달된 긴장과 에너지를 표현하기도 하며, 같은 아이টে임을 모방 반복하여 생김 미묘한 차이 그리고 반복함으로써 생기게 된 움직임과 리듬 등이 바로 Viktor & Rolf가 강한 시각적 영향력을 창조하고, 초

현실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그들의 디자인 언어라고 볼 수 있다.

2) 자연물의 의상으로 이동

자연물의 의상으로의 이동은 의상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를 오브제화한 사물로 변형시켜서 새롭게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의상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고 상징화하는 표현방법이다. 이것은 초현실주의의 페삐이즈망의 표현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자연의 오브제, 새, 꽃, 바닷가재 등과 같은 자연물로서 이것의 형태를 변경시켜 나감으로써 의상의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¹⁵⁾. <그림 33>은 2004년 F/W에서 발표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자연의 사슴 이미지를 모델의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뺨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색다른 충격을 주었다. <그림 34>는 2003년 봄/여름 컬렉션의 한 작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색과 형태를 가진 꽃 장식으로 디자인하거나 프린트 되었다. 무대 위에서 꽃 모양의 옷을 입고 활달하게 춤을 추는 모델들은 ‘자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전달하였다. 전체가 꽃이 주제였던 이 컬렉션에서는 꽃 화환을 머리 장식으로 변화시켜 자연물을 의상으로 이동시킨 이미지와 드레스 전체를 꽃으로 장식하여 마치 자연의 꽃밭이 이동한 듯한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그림 35).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36>은 자연의 해바라기 꽃을 프린트기법으로 원피스 전체에 밝고 환하게 프린트하여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이



<그림 31> 2002 S/S.



<그림 32> 2003/4 F/W.



<그림 33> 2004 F/W.



<그림 34> 2003 S/S.

15) 형성희, *Op. cit.*, pp. 437-438.



〈그림 35〉 2003 S/S.



〈그림 36〉 2003 S/S.



〈그림 39〉 2005 F/W.

동시킨 작품을 보여준다.

3) 일상 사물의 이동

일상 사물의 이동은 의상과는 별개의 일상 사물을 의상에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충격을 줌과 동시에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초현실적 방법이다. Viktor & Rolf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전형적인 기법인 오토마티즘, 데페이즈망 등을 그의 디자인작품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많은 재미있는 의상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2005 F/W 쇼에서 〈그림 37〉에서와 같이 의상과는 전혀 접목될 것 같지 않은 이불을 의상에 접목시켜 Viktor & Rolf만의 초현실적인 독창성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특히 의도적으로 묘사된 모델의 머리카락으로 인해 마치 모델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것은 열거된 5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착시의 현상을 증폭해



〈그림 37〉 2005 F/W.



〈그림 38〉 2005 F/W.

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은 검정색을 이용하여 모델이 마치 포장된 상품과 같은 형태를 띠는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머리에 쓴 헬멧으로 인해 더욱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없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머리는 있어도 얼굴이 없거나 안보이도록 하는 방법도 또한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의 하나이다. 〈그림 39〉도 전자와 같은 개념의 디자인으로서 리본이 과장되게 디자인된 드레스는 크림, 핑크, 빨강 그리고 돌돌 말린 리본에 의해 앞의 디자인과는 대조적으로 달콤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4) 의상품목의 위치 이동

의상의 위치 이동은 의상 자체를 기존의 위치에서 끄집어 내어 전혀 다른 곳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법으로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방법인데,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의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데페이즈망은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으로 이 기법 중의 하나인 트롬뻔뢰이유(Trompe-l'oeil) 기법은 눈속임이라는 뜻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한 방법이다. Viktor & Rolf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40〉과 같이 의상에서 목이 들어가야 할 부분을 어깨 쪽으로 옮겨 옷을 입는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거나 〈그림 41〉과 같이 옷의 위와 아래가 바뀌게 하는 등 관습 파괴를 보여주고 동시에 유머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2006년 쇼를 통해 의상의 위치이동을 여러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그림 40〉 2006 S/S.



〈그림 41〉 2006 S/S.

5) 시각적 착시

시각적 착시란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적 예로서 Viktor & Rolf는 2002년 쇼에서 파란색의 chromakey-blue 원칙을 응용하여 쇼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파란색의 배경을 빈 캔버스로 사용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춰진 어떤 이미지든지 보이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말한다(그림 42). 기존의 옷은 사라지고 옷 위에 새로운, 그것도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착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파란색 바탕을 뒤로하고 일기 예보를 하는 아나운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Viktor & Rolf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상품 이상의 꿈을 나타내는 옷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즉 시각적 착시를 이용하여 꿈을 표현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패션이란 옷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이며, 현실을 뛰어 넘어 꿈으로 갈 수 있는 창구이자 대피구라는 초현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연속해서 파란색으로 된 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림 43〉은 재킷의 패턴에 있는 파란색과 스카프의 섬세한 끝이 마치 패턴과 연속되는 착시를 보여주고 있다. 달리의 흐르는 눈물에서 영감을 받아 스기야빠렐리가 1937년에 디자인한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드레스인 “Tear Illusion Dress”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의 〈그림 44〉의 셔츠는 한 부분이 마치 떨어져 나간 듯한 착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45〉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온 디자인을 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이 초현실적 표현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작품 세계를 풍부하게 해 왔음을 앞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그림 42〉 2002/3 F/W.



〈그림 43〉 2002/3 F/W.



〈그림 44〉 2005/6 F/W.



〈그림 45〉 2002/3 F/W.

고 초현실적 방법이 각 디자이너에 따라 수용되고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달랐지만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초현실적 방법은 존재해 왔고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 연속성을 유지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활동이 두드러진 Viktor & Rolf의 초현실적 작품 특성을 변형, 자연물의 복식으로 이동, 일상 사물의 이동, 복식 품목의 이동, 시각적 착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초현실적 경향이 메가트렌드로 미

래에 영향을 끼칠 큰 흐름인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초현실적 특성은 새로운 것을 항상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원천지로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현대인의 방법론으로서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IV. 결 론

1919년부터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

〈표 3〉 Viktor & Rolf 패션의 초현실주의 특성

	Viktor & Rolf의 초현실주의 특성	작품 사례
변형	아르프의 인체의 초현실적 변형과 그 개념은 함께하나 의상인 관계로 패턴 구성 방법을 이용하여 형태를 받아시켜 변형시키는 방법.	
자연물의 의상으로 이동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를 오브제화한 사물로 변형, 새롭게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의상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고 상징화하는 표현방법.	
일상 사물의 이동	의상과는 별개의 일상 사물을 의상에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충격을 줌과 동시에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초현실적 방법.	
의상품목의 위치이동	의상 자체를 기존의 위치에서 끄집어내어 전혀 다른 곳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법으로써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방법.	
시각적 착시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방법.	

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인 문학과 예술운동인 초현실주의는 회화에서부터 의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초현실주의 의상은 1930년대에 스기야빠렐리를 시초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80년대부터 이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의상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현실주의가 80년대에 일시적으로 유행하였다가 사라진 경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활동이 두드러진 디자이너 Viktor & Rolf를 선택하여 그의 옷에 나타난 초현실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Viktor & Rolf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을 분류해 본 결과, 변형, 자연물의 의상으로 이동, 일상 사물의 이동, 의상 품목의 이동, 시각적 착시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분석 결과 초현실주의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초현실주의 특성이 그들의 활동 역사가 짧은 관계로 각 컬렉션에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라 각 컬렉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매 번 컬렉션을 계획함에 있어 Viktor & Rolf는 초현실적 주제를 그들의 주요 주제로 삼아 집중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현실주의 특성 분류 중 변형은 극단적이고 3차원적인 것을 강조하거나 같은 아이템을 모방 반복하여 생긴 미묘한 차이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반복함으로써 생기게 된 움직임과 리듬을 이용하여 변형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연물의 의상으로의 이동은 꽃다발을 모자로 이동시키고 인간의 머리를 사슴으로 새롭게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고 초현실주의의 자연물의 의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일상 사물의 이동은 이불의 이미지를 의상에 접목시켜 3차원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초현실적인 것을 표현하였으며, 리본을 이용하여 인간을 사물화하고 부자연스러운 비례감에 전달된 긴장과 에너지가 초현실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의상의 위치 이동은 초현실주의의 페페이스

즈망의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의상의 입는 개념을 벗어난 초현실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여섯째, 시각적 착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패션의 접목을 시도한 작품으로 단순히 옷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상품 이상의 꿈을 나타내는 옷을 제작하였다. 즉, 꿈이라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특성을 표현 했다.

Viktor & Rolf의 작품특성의 고찰을 통해 초현실주의가 디자이너에게 영감의 원천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첨단문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지쳐버린 인간의 감성은 신선함에 대한 기대치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기능적인 영역보다 느낌이 좋은 미적 언어로 표현되는 디자인이 인간의 이성의 뒤에 숨어 있는 감성을 자극할 것이다. 미래의 디자인은 더욱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할 것이며 인간의 상상력이 배어있는 초현실주의는 메가트렌드로서 자리를 굳혀 나갈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초현실주의와 초현실적 표현과 특성 등을 구분하고 분류하여 현대 디자이너 Viktor & Rolf를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초현실적 표현 중에서 자연주의 등과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개념과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초현실주의 분류 시 특성이 명확한 작품만을 선별하였으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홍렬 외 (2006). *메가트렌드*. 서울: 한길사.
- 김경희 (1997). “티에르 뮈글러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일 (1993). “Elsa chiaparelli 작품 연구(I).” *국민대 조형논집* 제12호.
- 손수영 외 (2002). “초현실주의적 디자인 트렌드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지* Vol. 10.
- 신 콘사이스 *국어사전* (1979). 서울: 동아출판사.
- 신현숙 (1992).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 안선미 (1987). “초현실주의 작품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88). “Art Nouveau와 Art Deco예술 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 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형 (1993). “유행과 초현실주의.” *생활과학연구* 논집. 13권 1호.
- 현대미술용어사전 (1988). 서울: 열화당.
- 형성희 (1994). “현대복식의 초현실주의적 조형성.” *복식문화연구* 2권 2호.
- Janson, Horst Woldemar (1989). *회화의 역사*, 유홍준 역. 서울: 열화당.
- Langer Susanne K. (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역. 서울: 서울문예출판사.
- Richard, Martin (1988). *Fashion and Surrealism*. Thames and Hudson: London.
- Valerie, Steele (1991). *Women of Fashion*. New York: Rizzoli.
-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2004). *Fashion in Colors/Victor & Rolf & KCI*. Kyoto: Nissha printing Co.